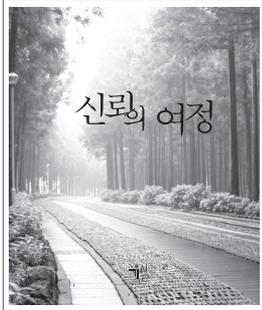


신뢰의 여정

| 기윤실열매소식지 | 2008년 7~8월

기
윤
실
열
매
소
식
지

2008년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7~8월)



발간개요 기윤실은 2007년부터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운동(Trust Initiative)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신뢰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느 조직보다 먼저 기윤실이 신뢰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기윤실과 여러 시민단체가 논의하여 만든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2007년 기윤실 사역보고서 - [신뢰의 열매]'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기윤실은 더 나은 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대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인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보고 내용을 담은 기존의 소식지(격월) 양식을 넘어 기윤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파트너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역열매를 정리한 “신뢰의 여정”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작성기준 본 사역열매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민단체인 기윤실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RI G3 가이드라인		기윤실
프로필		① 열매소식지 소개, 조직구조, 목차, 비전체계도, 비전메시지
보고 원칙 및 지침		② 열매 관점 핵심사업 선정(중요성)과 협력파트너(이해관계자) 소개 / 9대 핵심사업
이해관계자		③ 협력적 관점 회원, 교회, 임원, 연대단체
경제		④ 재무적 관점 회계보고(전 분기와 비교하여 보고), 후원자명, 재정투명화 원칙
환경		⑤ 환경적 관점 내부적 노력, 외부대상(교회, 회원) 캠페인
사회	노동여건 인권부분 사회적부분 제품책임	⑥ 학습과 성장관점 간사역량, 조직역량, 영성개발
기타		⑦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광고

※ 기윤실만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5개의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①열매관점 ②협력적 관점 ③재무적 관점 ④환경적 관점 ⑤학습과 성장 관점

보고기간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표지 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20%의 그린라이트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여 공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횡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신뢰의정 CONTENTS

역대기과제
로

행정적 과제로

학술과 성장 과제로

재무적 과제로

기타

환경적 과제로

보고서 개요	002
목차	003
비전메시지	004
핵심사업소개1 신뢰회복캠페인	006
핵심사업소개2 교회저작권운동	008
핵심사업소개3 창의여성리더십운동	011
핵심사업열매성취물	012
회원의 글 이제는 풀뿌리 운동을 지향해야 합니다. 김익수 회원	014
회원의 손으로 뽑은 "기윤실 5대 회원실천약속"	015
창의와 상상학교 후기 이창호 사무국장 청구 기윤실	016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017
4-6월 회계보고	018
활동보고·활동계획·기도제목	020
창의상상이기 가치를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자	022
책광고 그리스도와 문화(IVP)	023
환경캠페인 "재생복사용지를 사용합시다"	024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확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열매소식지 2008년 7-8월호 통권 211호
 소재지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우창록 발행일 2008. 7. 28
 편집인 양세진 편집 조제호, 임희연 디자인 김문

' 섬기는 ' 사람들

이사 우창록(이사장) 강영만 권경희 김동호 김일수 김중환 김홍식 박상은 박은조 방선기 백종국 송인수 오영현 이동원 이우근 이의용 이장규 전재중 정애주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황형택 감사 임성민 황호찬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장규 주광순 정직신뢰성증진운동본부감염연(본부장)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김선욱(본부장) 생활신앙실천운동본부 신동식(본부장) 목회자리더십포럼 황영익(운영위원장)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김은혜(위원장) 신은정 신재용 심경미 정성진 정희경 최경은 기독교윤리연구소 노영상(소장) 강영만 강진구 김병연 박노옥 박준용 손화철 송해룡 신국원 정성진 최재덕 최태연 추태화 디지털경영위원회 이순인(위원장) 이재우 정용태 최철웅 사회복지위원회 이영규(공동위원장) 조홍식(공동위원장) 두준기(부위원장) 강영신 권오용 김경식 김동배 김동엽 김미혜 김수정 김현호 김해란 라정호 박경숙 박정수 백은영 손인용 송시철 신산철 신정훈 오세관 오창섭 유의웅 이기영 이만동 이무영 이상근 이영분 이창희 장동환 조제호 조태배 최성재 신뢰받는일터만들기위원회 이용기(위원장) 김인숙 박재우 신학위원회김영민 김동춘 김승근 김은혜 김형민 노영상 문시영 민종기 박득훈 송준진 신국원 신기형 신원하 양낙홍 유경동 이상원 이희배 임성빈 정광덕 정원범 정종훈 조종훈 홍순원 황환환 사무총장 양세진 사무처 안금주(부장) 조제호(부장) 최옥준(간사) 임희연(간사) 김문(협동) 김자숙(협동) 윤나래(협동) 한병선(협동) 이연희(인턴) 조영우(인턴) 이윤영(인턴) 협력단체 건강한국교회행정컨네트워크·공의정치실천연대·교회개혁실천연대·교회문화연구소·기독교영양연구원·기독교번호사회·기독교공명성서연대·기독교학문연구원·나태반대운동연합·뉴스미션·크리스천라이프센터·놀이미디어교육센터·성서한국·좋은교사운동·직장사역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기윤실네트워크 담당자 연락처

광주 조영미 국점 062-222-5382	부산 이재민 국점 051-462-1558	안동 권정훈 간사 054-857-7025
평산 류형철 간사 052-285-2072	익산 박병주 목사 018-231-0684	인천 우조은 간사 032-867-2740
전주 김윤배 목사 063-644-0492	전주 1055-753-1484	청주 이창호 국점 043-274-5852
대전 김주홍 처장 042-322-6464	LA 유용석 정보 cem_la@yahoo.com	워싱턴 강창제 정보 info@cemusa.org



촛불의 힘, 어디로 가야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한 달 넘게 지속되어온 촛불문화제는 한국 역사에 새로운 기록으로 남을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하다. 구한말에 종로에서 벌어진 만민공동회 사건에서 시작하여 3·1운동, 4·19와 5·18, 6·10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최근세사에 알알이 새겨놓은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자국인 것이다.

아직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어떻게 결말이 날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우리의 사회적 삶, 그리고 교회의 장래에 있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이러한 점들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촛불문화제는 정치가 더 이상 정치가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조직이 동원하지 않는 운동의 형태,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 참여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쁨의 발견은 촛불문화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몇몇 정치 사상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 언급을 해 두었다.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정치적 표현 행위는 인간 존재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는 근원적인 것이기에 촛불문화제가 개성을 표현하고 함께함의 즐거움을 드러냄, 그리고 실존의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희열을 경험하게 해 준다고 아렌트는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오늘의 젊은이들을 가리켜 자유의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조직에 자신을 몸 바쳐 헌신한 뒤 나중에 그 조직을 통해 정치적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들은 새로운 삶, 즉 '오락·즐거움 스포츠·즐거움 음악·즐거움 소비·즐거움 삶'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현재의 정치 상황은 즐거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질서에 반란을 일으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집합체를 이루어낸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린피스에 가입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한다. 이는 도덕적 의식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롭고 자발적인 연대의 방식을 통해 사회 속에서 정치적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다. 운동의 양상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암시되는 새로운 사회는 조직을 통해 일체성을 이루어내지 않고 비조직적 일체성을 발현시키며,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시적 질서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동의된 형태의 비가시적 질서를 이루어낸다. 또 통제된 일치가 아니라 자발적 일치를 추구하고, 전체와 개인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서로 상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이다. 촛불은 작은 불꽃들이 큰 빛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는 개체가 살아있는 전체의 조화를 상징한다.

촛불 시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불신이 있었다. 한국에 들어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자신도 모르게 먹게 될 수박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사회 체제에 대한 불신, 쇠고기 협상을 통해 얻게 될 다른 이익들이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 FTA 체결과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현 사태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 자녀가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한국사회에서 촛불문화제는 개개인들이 근본적 신뢰를 잃지 않았으며, 아래로부터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가 되었다.



김선욱¹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장
송실대 철학과 교수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위와 같이 생각할 때, 이것이 교회에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즉 교회가 촛불문화제가 함축한 변화된 시대를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절대적으로만 생각되었던 미국의 힘에 대해 우리가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촛불의 함축이나, 개개인의 비판적 목소리를 권위적 개인의 목소리나 조직의 힘으로 결코 제거할 수 없다는 함축, 그리고 이 힘은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거대교회를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강단의 정치적 입장이나 설교를 통해 지시되는 정치적 메시지가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 청와대를 향하던 촛불은 어느 틈엔가 교회를 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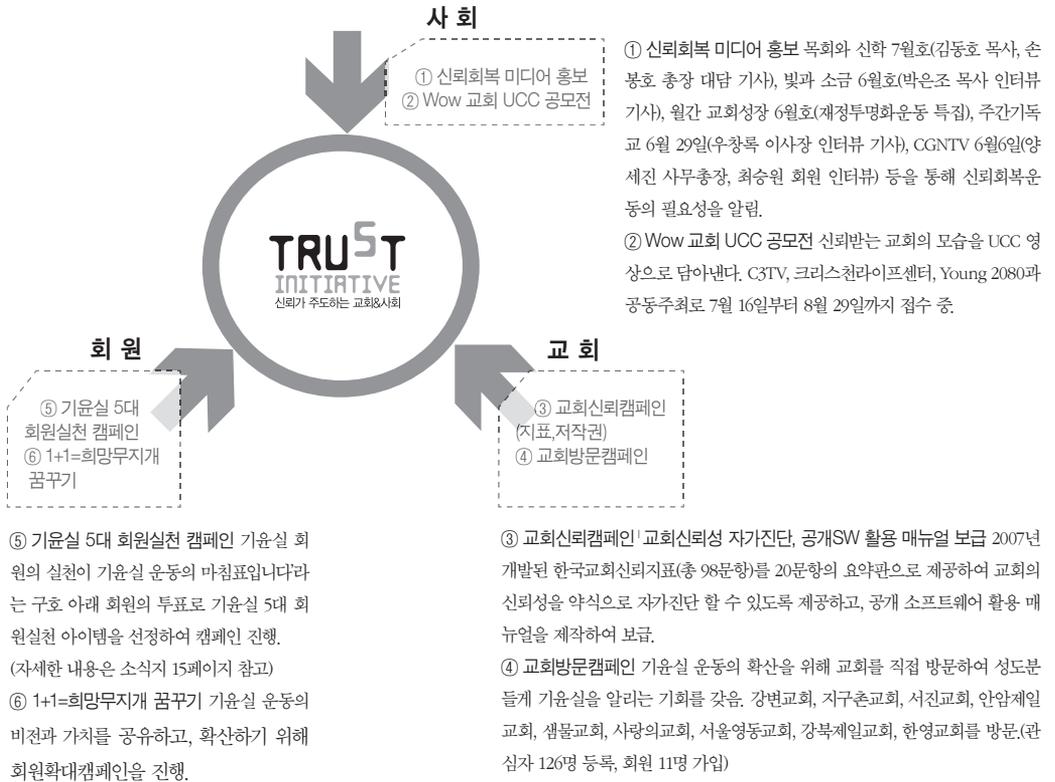


정직한 성도 & 신뢰받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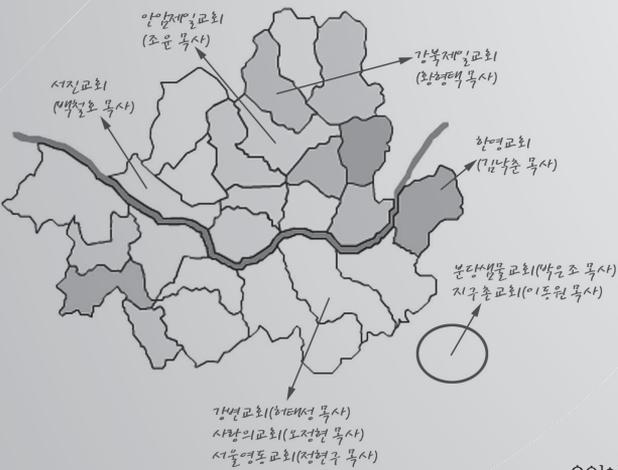
기윤실은 창립 20주년을 맞은 2007년부터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이 신뢰회복운동을 선포한 2007년에 비해 현재의 한국 사회와 교회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신뢰회복의 담론이' 폭넓게 확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고자, 특별히 6월 한달동안 "신뢰회복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통해 한국사회 가운데 교회의 신뢰성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기윤실의 교회신뢰회복운동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한달을 돌아봤을 때 부족함이 많았고, 기윤실이 먼저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 한달이었습니다.



윤슬이의 좌충우돌 교회방문기



☐ **6월8일** 교회방문캠페인의 첫 번째 교회인 강변교회를 방문했다. 예배시간에 짧게 기운실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담임목사님이 배려해 주셨는데, 기운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소개 하려니 막상 소개가 쉽지 않다. 기운실이 하는 활동을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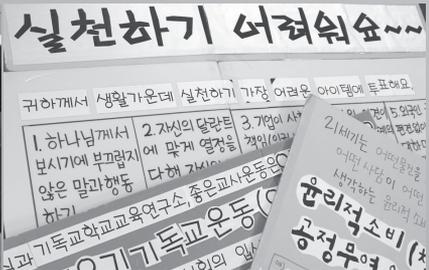
☐ **6월11일** 교회에 방문하기만 하면 줄을 서서 성도분들이 회원가입을 해 주실 것이란 생각은 점점 몽상이 되어가고 있다. 수요일이라 그런지 성도분들이 예배 후에 밀물 빠지듯 지나가신다.

☐ **6월15일** 최소한 교회방문을 허락해 주신 교회들의 경우 기운실에 대해서는 소개할 필요가 없고, 기운실 하는 운동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기운실 자체를 소개하기도 바쁘다. 아무래도 전략을 수정해야 겠다. 회원가입 보다 일단 기운실 자체를 알리는데 집중해야 겠다. '기운실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약자로...'

☐ **6월22일** 기운실을 후원하는 교회 성도분들을 직접 뵙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동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투표로 참여할 수 있는 판넬을 만들었다.

☐ **6월29일** 기운실 운동이 시작된 서울영동교회 방문이다. 이래저래 행사들은 많이 했는데, 서울영동교회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기운실을 알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거 같다. 최소한 기운실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며, 기운실 활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 **7월6일** 한달간 간사들이 주일과 수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열심히 9개 교회를 방문하였다. 처음 기대했던 성과는 턱 없이 달성하지 못했지만, 후원교회에 직접 방문하여 성도분들에게 기운실을 알리고, 이후 기운실 운동과 긴밀히 동역할 교회를 확보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한달간의 교회방문캠페인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기윤실이 교회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운동을 지원합니다.

조제호 팀장



한국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수들의 논문표절 사건은 전형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작년에 추진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쟁점 사항 중 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교회 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SW를 중심으로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없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이란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로서,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SW를 예로 든다면, SW의 저작권이란 저작권자인 회사 또는 개인이 정한 라이선스(사용권)에 따라 SW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SW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권은 한대의 PC에 하나의 SW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용자에 따라 개인용, 기업용, 공공기관용, 교육용 등으로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교회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한가?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품 SW 사용에 대한 단속을 받아왔지만, 교회의 경우 종교기관이라는 명목아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악보의 무단 복사 등 불법적인 사용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 제도의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교회 또한 저작권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교세의 감소와 여러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또 이러한 신뢰 상실의 다시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

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상실을 통한 위기는 단순히 이미지의 손실을 넘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좁아진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은 노력으로 한국 교회가 저작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교회 저작권의 현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저작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SW를 여러 대의 PC에 설치하거나, 개인용 노트북에 불법으로 SW 설치한 후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및 마당에서 초차 설교와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미명아래 불법 SW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4' 대안은 무엇인가?

기윤실에서는 2007년부터 교회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음의 4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내 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회 저작권을 생활입니다 -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각 영역별로 무엇이 적합한 저작권 사용인지, 불법적인 사용인지 제시하고, 43가지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식개선운동 뿐 아니라 고가인 SW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SW회사들(MS, 한컴)과 협의하여 교회를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을 유도하여, 올 5월 교회용 라이선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고가의 SW는 그림의 떡처럼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SW의 합리적인 가격인하 운동 뿐 아니라 상용으로 사용되는 SW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개 SW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중에 있습니다. 프리웨어, 오픈소스 등으로 알려진 공개 SW들은 성능면에서 결코 상용 SW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상용과 공개 SW를 서로 비교하여 소개하는 매뉴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형교회들이 본 교회에서 지원하는 미자립교회 또는 농어촌교회에 정품SW를 보내는 농어촌교회 IT 서포터스 운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5!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마 5:41)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공정한 SW 사용 의지입니다. 한푼 들이지 않고 복사하여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가격을 아무리 저렴하게 낮춘다 하더라도 정품사용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고, 상용 SW를 대체하는 아무리 좋은 공개 SW를 알게 되더라도 익숙한 것을 버리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은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오리를 가지하면 십리를 가리'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SW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십리를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표

기운실에서는 2007년부터 교회저작권운동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S 오피스와 아래아한글을 중심으로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가격정책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한컴) 등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5월부터 종교기관용 라이선스가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각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비교하여 소개합니다. 기운실에서는 추후 컴퓨터가 구동되기 위한 OS 프로그램 또한 교회용 라이선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범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글과컴퓨터(한컴)	심테크시스템
라이선스 제목	Church Package	종교단체용 라이선스	ThinkWise 교회용 라이선스
초기가격	199,000원(Church Package)	83,600원	55,000원(1 user)
추가 구매가격	99,000원(오피스 스탠더드)	83,600원	132,000원(3 user) / 165,000원(5 user) / 297,000원(10 user)
구성품	최초구매 : Church Package(MS 오피스 스탠더드, 윈노트, 익스프레스 웹, 비지오, 퍼블리셔)	한컴 오피스 2007 (한글, 넥셀, 슬라이드)	ThinkWise 5.0 Office (마인드 맵 소프트웨어)
	추가구매 : MS 오피스 스탠더드		
할인율(정가기준)	약 80%	약 65%	50~70%
장점	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구매가능	PC 대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PC 대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단점	PC 10대 미만 교회만 구매가능	5월 26일(월)~8월 29일(금)프로모션 기간에만 구매 가능	8월 1일~12월 31일 프로모션 기간에만 구매 가능
구매문의	1544-4969 조윤정	장로교: 소프트웨어천 02-553-2331 그 외 교단: 소프트플러스 / 조상범 과장 02-561-3036	파라미디어 : 02-419-7740
유의사항	① 교회명의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② 교회명의로 일정수량(예를 들어 10 copy)의 SW를 구매 후 일부 수량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미자립교회 또는 특정 교회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개인 또는 교회에서는 구매할 때부터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 명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 소개



기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독점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기운실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연구원 두분의 도움으로 집필하게 되었고, 전체를 소개하는 1권의 요약판과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6권의 사용자 매뉴얼(오피스, CD/DVD 레코딩, 압축, PDF 작성, 이미지편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운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소프트웨어와 매뉴얼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소프트웨어
오피스(워드프로세서)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아래아한글	오픈 오피스 (라이터, 칼크, 임프레스)
CD/DVD 제작	네로	윈도우의 CD/DVD 굽기 기능, 파이널 버너 프리
파일 압축	알집, WinZip	에브리존집, 다집, 7집, 밤틀이, 빵집
PDF 제작(변환)	어도비 아크로벳, PDF-Pro	doPDF, PDFForm 2006, PDF-Pro(독도, 문화재)
이미지편집	포토샵, 페인트샵	포토스케이프, 김프



성경이 바라보는 여성을 배우다 윤나래 간사



기윤실 창의여성리더십 운동은, 선교 초기 한국사회의 여성 리더십을 이끌어간 기독교 여성들이 선교 1세기가 넘어선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가장 뒤쳐진 여성그룹이 되었다는 안타까움에서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권인 교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복음의 반쪽, 즉 여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온전한 복음·통전적 복음의 진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2008년 창의여성리더십 운동의 주요 사업은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과 창의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회원 월별모임입니다. “성경공부 소그룹모임”은 ‘성경은 여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 1,2기에 이어 3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서울장로회신학교 김호경 교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통일된 주제로 교계의 신약성경부문을 감수하시고 전체 개괄강의도 해주셨습니다. 성경공부 모임을 참여했던 회원들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했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2007년 1기 창의여성리더십 아카데미”는 여성문제, 여성리더십에 관한 6개의 개괄적인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2기 창의여성리더십 아카데미는 이를 보완하여 3가지 주제를 강의 1주, 워크샵 1주로 구성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여성의 문제가 해결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조망하고 풀어보고자 ‘교회여성들이 바라보는 성, 결혼, 가정’이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했습니다.

“여성회원 월별모임”은 3월에 시작하여 4,5,6월은 성경공부 오픈강의와 아카데미로 겸했습니다. 각각의 모임을 통해서 기윤실과 인연을 맺으신 몇몇 분들은 창의여성 부분 뿐 아니라 기윤실의 다른 사역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셔서 반가웠고, 창의여성리더십 운동을 통해 동역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다는 말씀에 참 감사했습니다.

기윤실 창의여성리더십운동은 성경말씀과 기독교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약부분의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 (11~12월, 7주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 사역 보고

- 1 | 성경공부(신약부분) 모임 “예수님의 공동체” 2008.4.25~6.5, 매주 월(또는 화)요일 저녁 7:30~9:30, 신촌 토즈
- 2 | 아카데미 “교회 여성이 바라보는 성, 결혼, 가정” 2008.5.22~6.26, 매주 목요일 저녁 7:30~10:00, 일깨우는 교회
- 3 | 여성회원월별모임 3월~6월



2008년 기윤실 9대 핵심사업 열매 성취율

운동영역	사업명	담당
사회신뢰 회복운동	1.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입사기운동)	방선기 목사 임희연 간사
	2. 기독교와 삶의정치 컨퍼런스	김선욱 교수 최욱준 간사
	3.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김은혜 교수 윤나래 간사
교회신뢰 회복운동	4. 신뢰회복캠페인	정책기획팀 조제호, 최욱준, 임희연
	4-1. 한국교회신뢰지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4-2. 교회저작권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5. 교회재정투명화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최욱준 간사
	6. 목회자리더십포럼	황영익 목사 조제호 팀장
회원 실천운동	7.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 30일 교재 발간 및 묵상나눔 모임	신동식 목사 최욱준 간사
	8. 기윤실 목요 포럼 “저자와의 만남”	노영상 교수 / 임희연 간사
협력운동	9.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나눔운동	양세진 사무총장 임희연 간사

* 100이 되면 핵심사업에 대한 열매를 성취한 것으로 봄

세부사업명	0	50	100
연대단체 출범			6월 24일 출범
입사기 모델 찾기			
방선기와 함께하는 입사기 회원간담회/강연회		2회 진행	
정치적제자도 세미나			4월세미나 개최(민중기)
정치적제자도 설교집			설교집 발간
기독교와 정치실천 컨퍼런스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3기 종강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2기 종강
창의여성 대화모임(월1회) 1강 시작		4회	
교회캠페인			9교회 방문(하반기 월 1회 진행예정)
Wow 교회 UCC 공모전			접수 중(8월 29일까지)
신뢰회복운동 미디어 홍보			목회와신학, 빛과소금, 국민일보 등
1+1=희망 회원배가운동	10%		
한국교회신뢰지표 설문측정			상반기 9교회 진행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검토위 구성을 통해 초안 검토중
공개SW 활용매뉴얼			매뉴얼 보급중
교회용 SW 라이선스 정책유도			MS와 한컴 교회용 라이선스 정책발표
저작권가이드북 재발간			
교회재정운영규정 공청회 및 가이드북 발간			공청회 후 교회 피드백 중
목회자 납세 지원운동			설명회 및 상담활동 중
교회재정 종합매뉴얼 발간			
목회자리더십포럼 개최(3회)		1차 포럼	
신뢰받는 목회자를위한 7H 리더십 워크숍(2회)			1차 워크숍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30일 묵상 교재 출판			모임을 통해 피드백 중
핵심가치 묵상모임(권역별)			1기 진행
매월 목요포럼 개최			4차 진행
화이트밴드 캠페인			
회원나눔운동 전개			



이제는 풀뿌리 운동을 지향해야 합니다

김익수 회원



6월의 정국이 뜨겁습니다. 쇠고기수입 협상의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기름붓듯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봅니다. 밥상의 문제, 일상의 생활문제를 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의 사회참여 방식과 내용이 많은 질타와 공분을 자아냈듯 금번 촛불시위를 둘러싸고도 일부 기독교 인사들의 언행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촛불반대 시위’와 ‘000 목사, 당신이 부끄럽습니다’라는 우리 내부의 긴장이 여과없이 국민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은 한국 교회가 작년 수많은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제2, 제3의 부흥을 꿈꾸고 노래했던만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수준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두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기윤실의 신뢰 회복 운동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서 기윤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만큼 실천을 담보하는 기윤실운동에 대한 제안 한 가지를 내놓고자 합니다.

기윤실 운동이 철저하게 풀뿌리 운동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중앙 중심, 명망가 중심의 활동이었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 풀뿌리 운동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일상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 중심의 한국 교회 특성상 기초 단위의 운동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과 기도가 네트워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성도 개인의 생활 현장에 근접하는 소단위 모임 등을 통해 기윤실 운동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내부의 기독교 청년들과 장년들이 복음주의 운동의 주체로 세워져 개교회 차원에서 전개하기 힘든 문화적 여건을 창조적으로 극복하며 스스로도 새롭게 갱신하는 신앙인으로서는 건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윤실 운동의 내용을 저변화하고,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할 것이며, 이는 곧 개교회 내부에서 자기 역할에 동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의 운동 열매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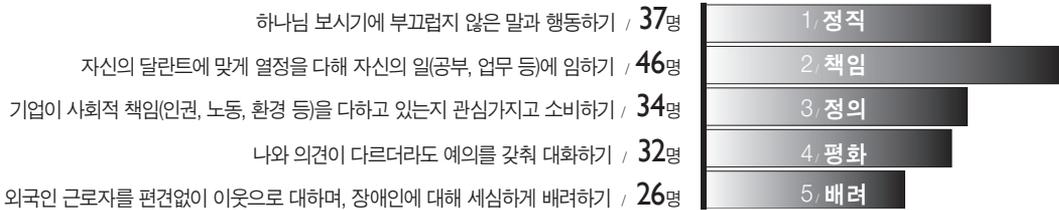


※ 이 글은 지난 6월에 김익수 회원님께서 기윤실 운동에 대한 제안으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회원의 손으로 뽑은 “기운실 5대 회원실천약속”

기운실에서는 지난 6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신뢰회복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캠페인 기간 중 기운실의 구성원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기운실 5대 회원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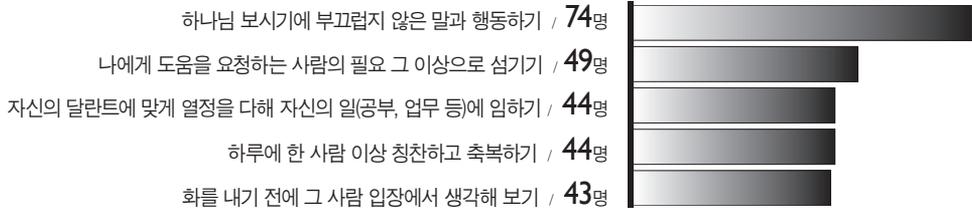
“기운실 5대 회원 실천 캠페인”은 회원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미션뱅크의 30가지 실천아이템 중에서 기운실 5대 핵심가치(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마다 1가지 실천 약속을 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총 98명의 회원(뉴스레터 회원 포함)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 뽑아주신 5대 회원 실천 약속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청년이 생각하는 5대 실천 약속

사무처에서는 지난 7월 2일~4일까지 IVF 전국 수련회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통해 기운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간 중 30가지 실천아이템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보겠다는 의미로 ‘나만의 5대 실천 약속’을 정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5가지를 소개합니다.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 아이템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대학생 총 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번 「신뢰의여정」 7·8월호와 함께 보내드린 ‘실천아이템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원 여러분 각자의 5대 실천 약속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시민운동의 공동창조자로 거듭나라!

이창호 사무국장 | 청주기윤실



올 1월 “창의상상 일본연수”를 다녀온 후 지역에서 나를 기윤실 운동을 하 다보니 어느새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나로 돌아감을 느끼고 있을 때 기윤실 간사수련회로 준비된 “창의와 상상학교”는 내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목 마름을 일시에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련회가 하면 그저 딱딱하고 뭔가 모르게 옥죄는 부담이 있지만 이번 간 사수련회는 창의와 상상의 엔진을 장착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창조된 공동창조자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해 주는 시간이었다.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라는 책을 필독하는 것으로 창의와 상상학교는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가장 짧고 긴 여행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그 단상을 몇자 적어본다.

01 | 그 혼란 광고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뭔가 움직이게끔 하기까지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탐험과 발견,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음을 보게 된다. 사람들 속에 스스로 알지 못하는 80%의 그 무엇을 찾아내어 그것을 삶에 반영시키고 제품화해서 보여줄 때 큰 시너지를 통해 동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기윤실 운동도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02 | 또한 지식채널e가 단순한 정보(Information)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흥미를 주고 돋보이게 하고, 의미를 주되 그것을 제작자가 정하지 않고 시청자가 나름대로 받아들여 판단하고 소화시키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정교한 기획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기윤실 운동도 기독교 내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깨달음과 앎이 통합된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03 | 지금은 브랜드 시대다. 브랜드는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총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많은 기업들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 브랜드 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아 브랜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부정적 이미지는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기윤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뭔가 진부하고 고루한 이미지? 그리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꼭 집어서 뭐다라고 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강의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도 표방하는 긍정적인 가치 중의 하나인데 기윤실은 OO다 라고 하는 정체성과 집중해야 할 키워드를 정해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4 | 기윤실이 실천하려는 가치들은 지금의 세대와는 다른 가치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

2008. 9. 9 ~ 11. 4. 1주
 21세기 시민운동학교
 CEMK Creativity & Imagination School
 2008
 창의를 상상하는 학교

님 나라 실현을 위한 필요한 가치라 믿는다. 하나님의 공동창조자로서 21세기 시민운동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와 상상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간사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필요를 느낀다.

05¹ 창의력은 실행되지 않으면 환상이고 망상이라고 한다. 내 이름은 창호인데 이는 창문과 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창과 문을 닫으면 외부로부터의 단절이지만 문을 열면 외부로 향해 나래를 펴고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기운실 간사로서 이번 창의와 상상학교가 입학식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창의적인 접근과 새로운 상상력을 통한 기운실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1기 기운실 간사 창의와 상상학교

취지 ☞ 창의와 상상력만이 새로운 시민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시대, 운동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만들어 간다.

일시·장소 ☞ 2008년 7월 9일(수) ~ 11일(금),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세미나실 3호(5층)

참석자 ☞ 양세진, 조제호, 안금주, 최옥준, 임희연, 김지숙, 권오재, 정유진(서울8명), 우조은(인천), 이창호(청주), 이성숙(대전), 김윤배(전주), 박병주(익산), 이재안(부산)

	7월 9일(수)	7월 10일(목)	7월 11일(금)
오전		내부 전략 토론회	6강 "Public Value Entrepreneurship" 양세진 사무총장(기운실)
오후	1강 "기운실의 상상학교" 문예란 대표(엘림 퍼블릭스) 2강 "연상력, 창의를 위한 베이지" 김연중 교수(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창의상상 조별 투어 4강 "브랜딩 마케팅" 김성균 부장(TBWA Korea)	7강 "창조된 공동창조자" 김은혜 교수(숭실대 교양학부) 그룹 작업 발표
저녁	3강 "인간을 향한 지식" 김진혁 PD(EBS 지식채널e) 그룹 작업	5강 "창의와 상상으로 기획하라" 김기홍 팀장(삼테크시스팀) 그룹 작업	

역량강화교육

- 4·28(월)~30(수)_신뢰받는 목회자를 위한 7가지 습관 리더십 워크숍 조제호, 최옥준
- 5·6(화) 11:00_김현숙 박사 특강 "영국의 사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간사 모두
- 5·15(목) 19:00_2차 기운실 목요포럼 이종록 교수 간사모두
- 5·17(토) 09:00_기독교윤리학회 (주제: 공공신학) 참석 양세진
- 5·22일(목) 13:00_목회와 신학 '정직한 한국 교회' 세미나 참석(온누리교회) 양세진, 조제호
- 6·9일(월) 10:00_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토론 나눔 간사 모두
- 6·9(월) 13:00_ThinkWise 사용 설명회 참석 간사모두
- 6·16(월) 14:00_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세미나 참석 윤나래
- 6·18(목) 19:00_3차 기운실 목요포럼 : 손봉호 총장 간사모두
- 7·5(토) 10:00_5차 공공신학 세미나 간사모두

- 7·7(월) 15:30_“빌게이츠로부터 배우는 혁신과 창의” 발표 양세진
- 7·9(수)~11(금)_기운실 간사 창의와 상상학교 간사모두
- 7·17(목) 19:00_4차 기운실 목요포럼 : 김영래 교수 간사모두

협력을 통한 변화

- 5·7(수) 11:30_서울환경운동연합 미팅 (교회 환경교육 사업협의) 양세진
- 5·8(수) 10: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최옥준
- 5·12(월) 18:00_크리스천 라이프센터 창립 1주년 참석 양세진, 안금주
- 5·13(화)_목회 EXPO 참석 기운실 홍보부스 운영 (충신대) 최옥준
- 5·14(수) 12:00_목회자 납세 TFT 회의 (한목협, 기독교보호사회) 양세진, 최옥준
- 5·15(목) 19:00_성서한국 집행위원회 조제호
- 5·20(화) 13:00_강영안 이사님 미팅 간사 모두
- 5·26(월) 18:00_17기 목회자 7H 수료생 모임

2008.4.25~7.20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본 코너는 학습과 성장을 위해 개인 뿐 아니라 기운실이 조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 5·28(수) 12:00_서울환경운동연합 미팅 (교회환경교육 사업협의) 양세진
- 6·5(목) 10: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최옥준
- 6·11(수) 11:00_선교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미팅 참석 양세진
- 6·12(목) 17:00_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창립모임 참석 양세진, 조제호, 안금주, 최옥준
- 6·17(화) 11:30_시민단체 사회적책임 운동 회의 양세진
- 6·19(목) 10:00_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사업워크숍 회의 양세진
- 7·2(수)~3(목)_IVF 전국수련회 기운실 홍보부스 운영 조제호, 최옥준
- 7·17(목)~18(금)_성서한국 인천부천대회 홍보부스운영 조제호, 최옥준
- 7·23(수) 16:00_서울환경연합미팅 조제호



04~06

기간¹ 2008년 04월 01일 부터 2008년 6월 30일 까지

수입			지출		
계정과목	2008년 1월~3월	2008년 4월~6월	계정과목	2008년 1월~3월	2008년 4월~6월
I. 사업수익	69,928,500	75,755,900	I. 사업비용	69,746,122	75,584,458
① 회비	38,753,000	37,198,400	① 인건비	16,922,792	15,287,192
㉠회원회비	30,498,000	29,251,400	② 사무관리비	11,461,740	13,892,038
㉡이사회비	3,895,000	3,795,000	③ 사업비	41,361,590	46,405,228
㉢지역회비	4,360,000	4,152,000	㉠사업인건비	19,141,180	19,683,820
② 일반후원금	27,655,000	30,190,000	㉡사업행사비	7,075,610	7,364,460
㉠교회,기관후원금	27,520,000	30,070,000	㉢홍보사업비	7,283,380	7,411,318
㉡간사후원금	135,000	120,000	㉣교육훈련비	665,670	152,000
㉢현물후원금	170,000	4,717,500	㉤지역사업비	5,195,750	5,793,630
③ 특정후원금	2,920,500	2,920,500	㉥발전기금	2,000,000	6,000,000
④ 사업수입	600,000	3,650,000			
II. 사업외수익	3,839,962	2,461,105	II. 사업외비용	139,000	3,313,800
수 입 계	73,768,462	78,217,005	지 출 계	69,885,122	78,898,258
당 기 감 소 액		681,253	당 기 증 가 액	3,883,340	
총 계	73,768,462	78,898,258	총 계	73,78,462	78,898,258

1. 이번호부터 후원자명단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별지로 제작하였습니다.
2. 자세한 월별 운영성과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기윤실은 재정에 있어서 더 높은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기준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모든 후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② 매달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③ 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④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단체운영이나 인건비 명목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 단, 단체의 사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 명목의 후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허위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윤실 후원구좌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 우리은행 821-05-002520 | 농협 074-01-121183 | 우체국 012401-01-001137 | 기업은행 070-013538-01-022
 제일은행 377-10-025628 | 신한은행 326-05-010678 | 하나은행 109-228746-00104 | 외환은행 144-13-05572-6 | 씨티은행 136-50810-258

간사 후원구좌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812-01-0115-671 | 지로번호 7530353

신규회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4월 1일- 6월 30일



- 4월¹ 김상수(DP0800047) 김희숙(DP0800046) 이상현(DP0800048) 이용훈(DP0800050)
 5월¹ 박종원(DP0800058) 이주희(DP0800063) 최재용(DP0800067)
 6월¹ 김경선(DP0800099) 김령희(DP0800073) 남준일(DP0800079)
 박미정(DP0800080) 손종호(DP0800087) 손주익(DP0800093) 안철우(DP0800075)
 윤민영(DP0800082) 이은영(DP0800074) 임영택(DP0800095) 임춘희(DP0800090)
 한신영(DP0800092) 홍창진(DP0800088)

창의여성 모임후기

‘동지’
(同志)...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게 하는 힘¹ 조아라

2기 창의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듣고 김문정

한국사회, 특히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위계질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그대로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양성평등의 가치관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닌지,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아닌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거부장적인 설교를 들으며 의기소침해 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억압돼 있는 것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게 됐다.

그리고 성경공부 교재 자체가 신선했다. 성서 속 특경 사건을 여러 책에서 뽑아서 하나의 억지스런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책의 저자가 말 하고자 했던 의도와 시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 사건을 가지고도 실제로 성경에서 다양하게 풀이될 수 있음을 새삼 다시 보게 됐다.^(소그룹 성경공부 모임 후기 중에서)

먼저 기윤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준비를 한참 시작해야 할 바쁜 시기에 기윤실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스스로 결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정의와 각오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여섯번의 강의를 통해 저는 먼저 배우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더 온전히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우선임을 제 마음의 평안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개인적인 상황에 맞추어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믿음과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기본으로 자리했던 강의였기에 제 안에서는 어떤 깨어짐의 감사가 가득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윤실 강의를 통하여 각기 다른 삶속에서 필요한 깨달음과 지혜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활동보고
활동계획
기도제목 #

- 5/06(화) 신뢰일구미 모임
- 5/06(화)~5/26(월) 3기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 5/07(수)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이하 입사기운동) 7차 회의
- 5/15(목) 2차 기윤실 목요포럼 '이중록 교수(삼각교회)
- 5/22(목) 신뢰회복캠페인 기자회견
- 5/22(목)~6/26(목) 2기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신촌토즈)
- 5/25(일) 입사기운동 8차 준비모임
- 6/01(일) 부천평안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 6/08(일) 교회방문캠페인①-강변교회
- 6/09(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긴급토론회(청어람)
- 6/11(수) 교회방문캠페인②-지구촌교회
- 6/12(목) 방선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입사기운동 회원간담회1
- 6/15(일) 교회방문캠페인③-서진교회
교회방문캠페인④-안암제일교회
입사기운동 9차 회의
- 6/19(목) 3차 기윤실 목요포럼 '손봉초 총장(삼각교회)
- 6/22(일) 교회방문캠페인⑤-분당샘물교회
- 6/24(화) 입사기운동 출범식(기독교관)
- 6/24(화)~7/29(화) 30일의 신뢰여정(서울영동교회)
- 6/25(수) 교회방문캠페인⑥-사랑의교회
- 6/29(일) 교회방문캠페인⑦-서울영동교회
- 7/03(목) 웹2.0 시대 교회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세미나(청어람)
- 7/05(토) 5차 공공신학 세미나(여전도회관)
- 7/06(일) 교회방문캠페인⑧-한영교회
입사기운동 10차 회의
- 7/09(수) 신뢰회복캠페인 평가회의
- 7/09(수)~11(금) 기윤실 간사 창의와 상상학교(여성플러자)
- 7/13(일) 서울남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 7/17(목) 4차 기윤실 목요포럼 '김영래 교수(삼각교회)
- 7/18(금) 상반기 사역평가 회의
- 7/18(일) 방선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입사기운동 회원간담회2(청어람)
- 7/21(월) 상임집행위원회(울촌)
- 7/22(화) 기윤실 운동 전략회의
- 7/27(일) 안암제일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활동 스케치



6/24(화) 입사기 운동 세미나 및 출범식

6월 24일(화) 오후 4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입시 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이하 입사기운동) 세미나 및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그리고 기윤실이 함께 시작한 이 운동은 기독교 내에서 입시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전환하고, 올바른 기독교 교육관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이 나라의 교육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데 교회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담당! 임희연 간사(lhy1244@naver.com)

6/12(목), 7/18(금) 방선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입사기 운동 회원간담회

6월 12일(목), 7월 18일(금) 두 차례에 걸쳐 “방선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입사기 운동 회원간담회”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선기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회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기윤실 회원들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임파워먼트 입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임은 교육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 임희연 간사(lhy1244@naver.com)

6/24(화)~7/29(화)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 (서울영동교회)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이하 30일의 신뢰여정)” 1기 6주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0일의 신뢰여정”은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잡힌 성경 목상을 통해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 등 기윤실의 5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성경을 목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매 주 화요일마다 진행된 모임에서는 전문가의 특강과 함께 한 주간의 목상 내용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회에 적용해 갈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최옥준 간사(chamcuj@hanmail.net)



6/26(목) 목회자 납세(신고, 환급) 설명회(명동 청어람)

교회재정투명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윤실은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통해 목회자 분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와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역별 설명회 개최, 상담 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회자분들을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목회자 납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당¹ 최옥준 간사(chamcuj@hanmail.net)

목회자 납세 상담센터

- 홈페이지 ¹ www.cfnet.kr(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 이메일 ¹ happytax@cfnet.kr
- 전화 ¹ 070-8237-5886

7/05(토) 5차 공공신학 세미나 - 사회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신학 세미나가 5번째 진행되었습니다. 공공신학 세미나는 2007년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2008년 들어서는 제 학문과의 통섭을 통해 공공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동서양 철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를 주제로 4차 세미나를 진행한바 있고, 지난 7월 5일 '사회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를 주제로 5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5차 세미나는 중앙대 사회학과와 신진욱 교수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정재영 교수께서 주제발제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담당¹ 조제호 팀장(jhoc@hanmail.net)



Tip01. 지난호 소식지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호부터는 소식지를 분기가 아닌 격월로 발행합니다. 아울러, 후원자 명단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호부터는 후원자 명단을 별지로 제작하였습니다.

Tip02. 이번호 신뢰의 여정을 보시고, 개선방안 또는 소감을 보내주시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그리스도와 문화(IP)"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이메일(cemk@hanmail.net)로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활동계획



- 8/01(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검토회의
- 8/10(일) 송죽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 8/21(목) 5차 기윤실 목요포럼 김희권 교수(삼각교회)
- 8/25(월) 기윤실 운동 전략회의
- 8/27(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공청회(예정)
- 8/28(목) 5차 삼일집행위원회
- 8/31(일) 한사랑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 9/18(목) 6차 기윤실 목요포럼 김선욱 교수(삼각교회)
- 9/21(일) 일산은혜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기도제목

- 1_2008년 상반기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사업도 창의와 상상을 통해 잘 기획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행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_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불신의 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윤실이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혜안과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Wow

교회UCC공모전

☑ **취지** / 대중화되고 친근한 표현 수단인 UCC 영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회의 모습,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기관 등을 알리고 공유하는 장을 만듦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신뢰받는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돕는다.

☑ **접수기간** / 2008년 7월 16일(수) ~ 2008년 8월 29일(금)

☑ **접수방법** / 640 x 480 픽셀 이상, 5분 이내의 분량을 확장자 avi, asf, mov, wmv 등의 파일로 제작하여 C3TV홈페이지(www.c3tv.com) 통해 접수

☑ 시상내용 /

구분	시상작 수	부상
대상(신뢰상)	1	상금 100만원 및 상패
우수상(정직상)	2	상금 50만원 및 상패
장려상(책임상)	2	상금 30만원 및 상패

☑ 개최기간 /

주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 C3TV, 크리스천라이프센터, Young2080

문의¹ 임희연 간사(070-7019-3760/1hy1244@naver.com)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를 참고해 주세요.





가치를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자, 너는 누구냐?

정리' 조제호 팀장

1. 윤리적 소비자, 너는 누구냐!

기존의 소비자들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선택의 잣대로 갖고 있었다면, 윤리적 소비자란 단순히 제품보다는 그 제품 안에 담긴 가치(윤리)를 읽는 소비자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윤리란 '환경에 대한 윤리일 수도 있고, '인권'에 대한 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윤리적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기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상품에 불매운동(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아디다스 축구화, 현지 소작농에게 혈값에 커피 원두를 사오는 다국적기업)으로 실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동물에 비윤리적 실험을 하는 화장품 회사(동물 실험을 자행하는 로레알)나 제약회사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 윤리적 소비가 왜 필요한가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경쟁은 이윤 자체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돈벌이에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생존, 자연자원의 막대한, 아동노동착취를 일삼아 왔습니다. 21세기 들어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공정무역운동이 대두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생산하고 자립이 가능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시장으로 진입해 공정한 가격으로 팔리며, 공급을 안정시키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자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은 원조가 아니라 정당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3. 윤리적 소비,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가장 많은 품목입니다. 무역량이 많은 만큼 노동 착취 등의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우리가 4,000원에 마시는 커피 한잔값에서 실제 커피재배 농부가 받는 돈은 10원에서 20원가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커피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잔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소비만 잘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셈이겠죠.(실제 스타벅스에서는 총 구매원두의 6%를 공정무역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4. 윤리적 소비, 어떻게 참여하나요?

우리나라의 윤리적 소비는 2004년 두레생협이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유기농 설탕을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생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설탕, 올리브유, 면제품, 커피, 축구공, 기방, 초콜릿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공정무역 전문 쇼핑몰(ecofairtrade.co.kr), 아름다운 가게(BeautifulCoffee.com) 및 친환경상품 에코숍(ecoshop.or.kr) 등을 이용하면 별도 생협 회원가입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윤리적 소비, 착한소비, 공정무역...복잡해요.

윤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 공정무역은 넓게는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무역의 신자유주의 경제원리에 대한 근원적 성찰로 시작된 공정무역(대인무역)이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윤리적 소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작은것이 아름답다
2006년 7월호(녹색연합)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지식 SOS '윤리적 소비' 항목
- 공정무역, 가능한 일인가
(데이비드 랜섬 저, 이후)
- 희망을 키우는 착한 소비
(프란스 판 데어 호프,
니코 로전 저, 서해문집)
- 즐거운 불편
(후쿠오카 켄세이 저, 달팽이)

그리스도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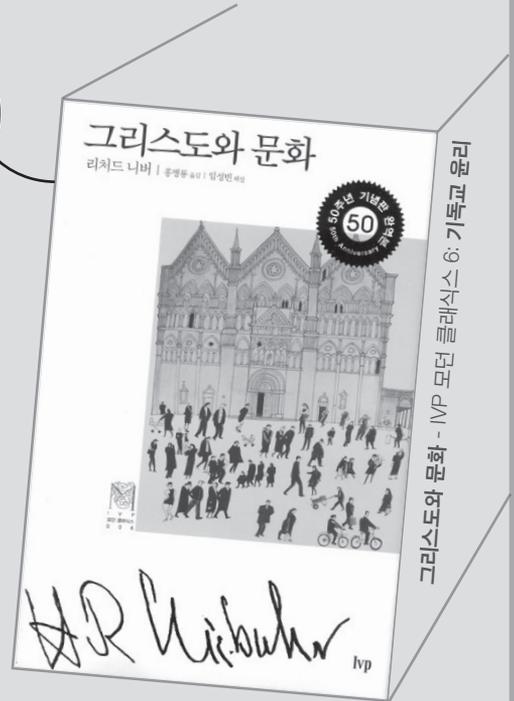
기독교와 사회 문화의 관계 다룬 독보적인 저작!

이 책은 기독교와 사회 문화의 관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고전적인 프리즘을 제공하며, 이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안을 열어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문화관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책이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신학적 고찰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이 몸담은 문화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씨름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 낸다.

“리처드 니버는 일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사 안에서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통전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와 씨름했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기독교와 문화)

“니버는 모호한 사상가가 아니고, 그의 논의 방식과 내용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독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의 고전적 특성은 나처럼 니버의 틀을 갖고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관계를 조망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그 진가를 입증해주리라 믿는다. 50년이 더 흘러 2051년이 되어도 이 작품은 매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틴 마티



리처드 니버 지음 | 홍병룡 옮김
임성빈 해설 | 신국번형 416면 |
양장 16,000원 · 보급판 14,000원



제임스 구스타프슨 서문 박충구 감신대 기독교윤리,

이상원 총신대 기독교윤리, 한기채 서울신대 기독교윤리, 마틴 마티, 추천



실천하는 기운실, “재생복사용지를 사용합시다!”

앨빈 토블러와 빌 게이츠는 그들의 유명한 저서 '3의 물결과' 생각의 속도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중이없는 사무실”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석학의 예측은 빗겨가서 오늘날 세계 종이 수요 및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전세계 출력 시장은 130조원 규모로 아직 100조원을 넘지 못한 TV나 40조원 안팎에 그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디지털타임스 2008.3.12)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관공서에서 재생복사용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Green 구입법). 이를 악용하여 몇몇 대형 제지업체들이 일반펄프를 재생용지로 속여 파는 바람에 일본 관공서들이 재생복사용지를 확보하느라 흥역을 치렀다는 웃지 못할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동아일보 2008.2.2)

기운실은 각종 자료집 인쇄와 소식지 발간을 하는데 있어 재생지 사용을 통해 지구환경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방법을 고심하다가 ‘재생복사용지’ 사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생복사용지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친환경 재생용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했지만 수요가 부족하여 수지탄산이 맞지 않아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회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재생종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사람들이 흰 종이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생복사용지를 취급하는 곳이 있어 몇 군데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곰두리몰 www.gom.or.kr / 환경상품홍보산업단 www.ecobuy.co.kr
성림몰 <http://sunglimmall.net> / 아이피스 www.iffice.com

재생용지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요즘에는 재생용지를 가공하는 과정(절차)에서도 최대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불식된 상태입니다. 또한 가격면에서도 일반 복사용지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제안

전국민이 하루에 A4용지 한 장만 덜 써도 30년 이상 된 원목 4천 5백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 더 나아가 매주 셀 수 없이 많은 복사물과 출력물을 만들어 내는 한국교회부터 복사용지 절약에 앞장서고, 재생복사용지 사용을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환경을 살리는 이 일에 한국교회와 우리를 각자가 앞장설 수 있기를 기운실은 큰 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계·해·요

지난 호 “종이컵은 사양합니다”에 이어 이번호 기운실 환경캠페인은 “재생복사용지”에 관한 것입니다.

임희연 간사

